

# 새로운 한국어 표준 문법에 대한 탐색

- 『한국어 표준 문법』(2018)을 중심으로 -

김 선 혜\*

## 1. 서론

본고는 최근 발간된 『한국어 표준 문법』(2018)<sup>1)</sup>을 중심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한국어 표준 문법 체계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표준 문법』(이하 <표준 문법>)의 목표는 “참조 문법 및 기반 문법으로서 한국어의 표준적인 문법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과제의 결과물을 수정한 것인데<sup>2)</sup>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의 언어 표준에서 출발하되, 그 동안 축적된 한국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개인적인 연구 성향이나 주장은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 한다. 범용성의 관점에서 이미 정착된 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를 흐뜨러뜨리고 다시 세우기보다 국어 교육

---

\* 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1)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 이러한 연구가 촉발된 것은 문법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문법의 규범성과 통일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인데 유현경(2015)에서는 문법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마지막 국정 교과서인 2002년 문법 교과서의 체계가 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법 기술이 담보되는 검인정 체제를 두고 굳이 국정 체제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나 그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새로운 체계의 대두와 용어 통일과 같은 면에서 기준이 되는 참조 문법이 필요해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표준 문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문법의 체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표준 문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문법 체계가 “표준”이 될 만한 체계성과 일관성,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 문법의 요모조모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책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러나 <표준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국어학 분야 전체에 걸친 것으로 매우 방대하고 각 영역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글로 모두 엮기에 무리가 있어 총론과 형태·통사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이란 좁은 의미에서 형태·통사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태·통사론을 중심으로 문법 체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표준 문법>의 체계가 기존 국정 교과서의 문법 체계에서 출발하였고 기존의 문법 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 문법의 기술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그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논의에 앞서 본고의 논의는 특별한 문법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문법의 체계란 문법 기술의 목적 및 문법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표준 문법’, 또는 ‘기반 문법’이란 모든 문법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적 설명력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특정한 체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범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표준 문법>이 내세우는 가치가 표준이 될 만한 새로운 문법 체계라는 관점에서 세밀한 논의보다 전체 체계가 가진 정합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개요 및 총론

### 2.1. 개요

<표준 문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표준 문법>이 정의하고 있는 ‘표준 문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 문법’이란 “국내외에서 국어 문법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어의 자료와 문법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국어 문법 체계”이다. ‘국내외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보아 국내 학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의 논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언어유형론적 시각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어의 자료와 문법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중요시하는 전통 문법적·혹은 구조주의적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는데 각 영역의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총론에서는 각론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개별 영역이 가지는 한국어의 특징을 한 자리에서 서술함으로써 다른 언어들과 대비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어 <표준 문법>의 특성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 문법>이 필요하였던 까닭과 <표준 문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기술 방향과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표준 문법>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표준 문법>의 구성 및 체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표준 문법>의 필요성이나 특성에서 나아가 <표준 문법>이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문 규범 개정과 국어사전 편찬 분야 그리고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분야에

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표준이 될 만한 문법 체계’라고 할 때 학자의 문법관이나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법 용어를 확정하고 그 개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문법 용어에 대한 통일을 기했다. 표준화된 문법 용어의 확인 과정에서의 얻어진 표준 문법의 용어와 기본 문법서와 어문 규범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문법 용어를 모두 살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표준 문법의 필요성과 문법 용어의 통일은 <표준 문법>의 각론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절을 달리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음운론에서 담화론에 이르기까지의 각론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인 핵심 문법 기술부와 미주의 형식으로 제시된 적용 문법 기술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핵심 문법 기술부에는 각 영역별 문법을 상세하면서도 간결하게 기술하였으며 적용 문법 기술부에서는 표준적으로 기술된 문법을 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이론 문법, 생활 문법 등에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핵심 문법 기술부가 표준 문법 또는 기반 문법 체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적용 문법 기술부는 이러한 문법 체계가 세워지게 된 배경부터 쟁점 등 이론 문법적인 부분은 ‘이론’으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국교’, ‘한교’로 일상 언어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로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문법 기술부는 <표준 문법>이 참조 문법 또는 기반 문법으로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며 이론 문법의 입장에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제기의 성격도 지닌다고 보인다.

## 2.2. 표준 문법의 필요성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 문법이란 규범 문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책의 ‘표준 문법’은 참조 문법(referenace grammar)이자 기반 문법(base grammar)의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규범 문법이 아닌) 참조 문법이라 함은 학교 문법 기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범성과 통일성은 가지되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기반 문법이라 함은 실제 언어 현실에 부합할 수 있고 범용성과 보편성을 가져 국어 교육 문법이나 한국어 교육 문법 등 전혀 다른 목적이나 체계를 가진 다른 문법 기술에도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현경(2015)에 따르면 이 <표준 문법>은 논의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립된 것으로 학교 문법, 이론 문법, 생활 문법에 기준을 제공하고 하위 유형의 문법의 체계를 만들 때 기초가 되는 범용적인 문법서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도 본고가 파악한 <표준 문법>의 성격은 집필 의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할 때 <표준 문법>의 문법 체계는 ‘표준이 될 만한’ 문법 체계이지 ‘표준’ 문법 체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준 문법’이나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규범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문법에 접근할 때 그 문법 체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강제성’과 언어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고정성’을 그 특성으로 삼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어떠한 언어적 사실에 대한 문법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정답을 정하기 어렵다. 때로는 해석이 다양한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희창(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 문법’이라는 개념 자체의 정당성은 항상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언중들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판계나 언론계, 학교 문법이나 각종 평가에서는 일관성 있는 문법 체계나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참조가 될 만한

문법 체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규범 문법으로서의 학교 문법이 존재해 왔다. 그러한 필요성의 연장선상에 이 <표준 문법>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교 문법은 문법 규칙들을 교육적 목적과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 교육 문법의 초점은 언어에 내지된 원리나 규칙 그 자체보다 규칙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지 그 용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 규범 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참조 문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p.9). 따라서 교육 문법, 이론 문법, 생활 문법을 아우르는 기초적 범용 문법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음운, 형태, 통사, 담화를 아우르는 일관된 문법 용어와 일관된 시각과 체계를 갖춘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3. 문법 용어의 통일

‘규범 문법’이건 ‘기반 문법’이건 간에 어떠한 문법 체계를 세움에 있어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론 문법에 있어 문법 용어와 그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특정 문법 용어가 학자의 학자적 정체성이나 관점 등을 대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다양성이 문법 이론을 풍부하게 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원활한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통일성은 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론 문법에서는 학계의 지지를 얻는 용어와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순서를 밟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불리는 문법 용어는 일반 언중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 문법>에서도 용어 정리를 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문법 교과서의 용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부 개념이나 그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그러한 차이는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용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격조사 중 ‘서술격 조사’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격조사’라는 용어의 개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술격 조사’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이 용어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다’가 ‘형용사’로 규정되면서 체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어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sup>3)</sup>. <표준 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어가 용어 자체, 또는 개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 중 형태론과 통사론의 예 몇 가지와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과 <표준문법>의 문법론 용어의 차이

<표준국어대사전>	<표준문법>
굴곡 어미(조사와 어미를 아우름)	X(조사/어미)
어기	X
주형용사	본형용사
품사전성(접미파생으로 인한 현상)	품사통용(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품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
재귀칭	재귀대명사
관형절	관형사절
안은문장	내포문
안긴문장	내포절

위의 표를 살펴보면 우선 <표준 문법>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3) 이는 지난 규범 문법이 가졌던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문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이 표방하는 ‘규범 문법’의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학교 문법의 범용성과 국어원의 어문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규범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상당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굴곡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굴곡 어미’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한국어의 교착어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의 ‘굴곡 어미’에는 조사와 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 문법>은 조사는 단어로, 어미는 용언의 일종으로 보는 준종합주의적 관점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접사로 보는 ‘굴곡 어미’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굴곡 어미’라는 개념은 ‘굴절’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어에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다. ‘굴절’은 어형 변화를 수반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어간에서 어형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기’ 역시 그 개념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표준 문법>에서는 ‘어기’라는 용어 대신 ‘어근’과 ‘어간’만을 단어 구성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다. ‘어근(語根, root)’은 복합어에서 접사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를 말하며 ‘어간(語幹, stem)’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어미를 제외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주형용사’라는 용어 역시 ‘본용언’이라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형용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관형절’과 ‘관형사절’의 문제 역시 ‘부사절’, ‘명사절’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였을 때 ‘관형사절’을 채택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을 ‘내포문’과 ‘내포절’로 쓴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35쪽에서 이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내포문이라는 용어가 모문인지 내포되는 절인지에 대해 학계 내에서도 사용에 혼란이 있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내포’가 갖는 중의성뿐만 아니라 ‘문’과 ‘절’의 구분이 모호한 데서도 비롯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문’은 ‘절’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포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은’과 ‘안긴’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꽤 유용해 보인다. ‘문’과 ‘절’의 구분까지 고려하였을 때 ‘안은문장(모문)’과 ‘안긴절(내포절)’과 같은 용어도 생각해 볼직하다. <표준 문법>의 체계가 범용성과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안은’과 ‘안긴’의 차이, ‘문장’과 ‘절’의 구분은 ‘문’과 ‘절’의 구분보다 직관적으로 그 차이가 인식되기 때 문이다.

### 3. 형태론

<표준 문법>의 형태론 부분은 학교 문법 등 기존의 규범 문법의 틀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최근의 이론 문법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결과물이라 하는 점에서 다른 부분의 서술 방향과 유사하다. 따라서 기존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서술이 주를 이루는데 그러한 가운데 커다란 변화를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종래 서술격 조사로 보던 ‘이다’를 형용사에 넣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칙만을 내세우던 단어 형성 방식에서 다양한 형성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 3.1. 형용사 ‘이다’

<표준 문법>의 문법 체계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다’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다’에 관한 내용은 ‘형태론’ 부분 중 4장 용언에 기술되어 있는데 동사, 형용사, 보조동사와 함께 독립된 목을 이루고 있을 만큼<sup>4)</sup> ‘이다’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규범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처리했던 것과 달리 형용사

4) 267쪽 각주 13번에 따르면 “<표준 문법>에서는 ‘이다’를 형용사로 보므로 형용사에 포함해서 다루어야겠지만 나머지 형용사와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다루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문법 체계에도 여러 영향을 끼쳤다. 기존의 체계를 존중하는 기술 방향성을 가진 <표준 문법>의 체계에서 ‘이다’에 대해 기존의 서술격 조사와 전혀 다른 범주로 분류해 내고자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표준 문법> 체계에서 이 ‘이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특성 중 활용을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용언으로 분류하고 활용의 형태를 보아 형용사로 본 것인데 이는 기존의 규범 문법에서 ‘이다’의 통합 관계를 중요시하여 격조사의 일종으로 처리하던 것과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다’에 대한 논쟁은 국어학계에서도 꽤 해묵은 논쟁이면서 아직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거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활용을 한다는 용언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통사적으로는 항상 선행하는 체언에 붙어 비자립적으로 쓰이며, 선행하는 체언에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용언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기심 외, 2006: 270)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지정사, 형용사, 계사, 접사 등 다양한 범주로 기술되어 왔는데<sup>5)</sup> 이러한 독특한 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범주로 분류하더라도 항상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셈이다.

<표준 문법>에서의 ‘이다’ 처리는 기존의 서술격 조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법 범주, 특히 품사 체계가 좀 더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서술격 조사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불변화사인 조사의 범주 안에 활용을 하는 조사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한국어의 격 체계에 ‘서술격’이라는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격은 주로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가 다른

5) 이광정(1994)에 따르면 ‘이다’의 문법 범주는 ‘서술격조사, 서술격어미, 체언의 활용어미, 매개모음, 체언의 동사화소, 접중사, 의존형용사, 용언, 지정사’ 등으로 약 9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를 크게 나누면 용언으로 보느냐, 체언의 굴곡 요소로 보느냐, 기타 문법소로 보느냐의 문제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성분들과 어떠한 문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순수하게 통사적이라기보다 의미적 요소가 짙은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격’이라고 하는 격은 언어유형론적으로나 한국어의 다른 격 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다. 서술격 조사설이 가진 강점이라면 체언과의 통합 관계에 대한 설명에 용이하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다’가 체언, 체언 상당어를 제외하고서도 절이나 부사 등과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다’가 ‘조사’, 그것도 ‘격조사’의 일종인 것은 여러 모로 조사의 체계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sup>6)</sup>.

(1) ㄱ. 철수가 지각을 한 것은 늦잠을 자서이다.

ㄴ. 아, 깜짝이야.

‘이다’의 통합 관계보다 ‘활용’이라는 형태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용언의 일부로 보는 것이 품사 체계의 형태적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처리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품사 설정은 기능과 형태, 의미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현재 한국어의 품사 체계는 불변화사와 변화사의 두 축으로 나뉘므로 형태적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다’의 품사 설정에 있어 이러한 형태적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의 품사 분류 원칙과도 일관된 처리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 문법 체계 내의 정합성 문제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다’가 용언의 하위 부류 중 형용사가 된 것은 최근의 언어유형론의 연구 성과와도 유관해 보인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적용 문법’ 부분

6) 주지하다시피 ‘격조사’가 절이나 부사와 통합되는 일은 흔치 않다. ‘이다’를 조사의 일종으로 볼 때 통합 양상은 ‘보조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이다’가 체언을 서술어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다’를 ‘보조사’처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다’는 조사 체계 안에서도 이단아였던 셈이다.

에서 ‘이다’의 언어유형론적 특성을 설명하고 국어의 ‘이다’는 동사적 계사 중 형용사에 속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다’는 용언의 하위 부류 중에서도 형용사에 속하게 되었다. ‘이다’의 활용 양상이 형용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용사설은 일견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체언 + ‘이다’]가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때 의미적 유사성도 파악된다. 부정어인 ‘아니다’와의 관계도 조금 더 명확해진다.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나 ‘부사+이다’구성이 문법화되고 있는 ‘별로이다’, ‘제법이다’와 같은 경우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sup>7)</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다’가 형용사에 가까운 범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 문법은 설명력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의 여지가 많다. 직관적으로 여타의 형용사들과 형태적, 통사적으로 괴리가 큰데 이러한 괴리에 대해 <표준 문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유형론적으로, 형태·통사론적으로 ‘이다’를 의존형용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국어 용언의 다른 범주에 의존 동사<sup>8)</sup>를 설정하지 않은 점에서 이 의존형용사는 일단 ‘이다’만을 위한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지정사’를 설정할 경우 지정사 범주에 ‘이다’, ‘아니다’만이 포함되게 되어 체계에 부답이 된다는 <표준 문법>의 입장과 상충된다. 후에 파생에 대해 다룰 때 통사적 접사를 소개하며 구에 결합하는 ‘답다’나 ‘같다’가 ‘이다’와 같은 의존 형용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350쪽) 통사적 접사로 소개된 ‘답다’와 ‘같다’가 ‘이다’와 같은 점은 형용사적 활용을 보인다는 점, 조사 없이 선행 명사 또는 명사구와 결합한다는 점, 구

7) ‘부사+이다’ 구성이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정도·김선혜(2009)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8) 보조동사류를 의존동사라고 칭하기도 하나 <표준 문법>에서는 ‘보조용언’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보조용언’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의존형용사라는 용어는 보조용언과는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단위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러한 통사적 접사들 역시 의존 형용사로 묶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다’와 ‘같다’, ‘답다’는 상당한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같다’, ‘답다’가 어휘적 의미가 있는 반면, ‘이다’에는 그러한 어휘적 의미가 없다. 또한 ‘같다’와 ‘답다’는 선행 요소로서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구만이 와 선행 요소가 제한적이지만 ‘이다’는 부사, 절 등 선행 요소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왜 국어의 문법 체계 내에 의존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왜 의존 형용사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이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다’에 선행하는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와 같은 성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뒤이어 통사론 부분의 문장 성분 기술에서 ‘보어’ 관련 논의를 할 때 다시 ‘이다’의 선행 성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표준 문법>에서는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면서 ‘이다’의 선행 요소를 ‘보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다’의 선행 요소를 ‘보어’로 처리하는 문제는 ‘보어’ 체계 내에서도 일관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sup>9)</sup>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다’를 용언의 일부로 보는 것은 품사나 문법 범주 체계에 일관성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를 형용사의 하위 부류 중 ‘의존형용사’로 분류하는 문제는 한국어 용언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다’를 용언의 일종으로 보고자 할 때 그렇다면 용언 중 어느 부류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해결이 난망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에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존재해 왔으며 ‘지정사’라고 하는, 최현배(1937) 이래로 통용되는 전통적인 개념도 존재한다. ‘지정사’가 ‘이다’만을 위한 품사가 되어 체계에 부담이 될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만하나 ‘이다’가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이다’만을 위한 품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다’를 ‘의존형용사’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의존형용사’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혼란들을 정리할 만한 좀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은 ‘이다’ 논의의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특히 ‘의존형용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 3.2. 다양한 단어 형성 방법 인정

단어 형성론에서 <표준 문법>은 기존의 학교 문법의 기술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 형성 방법으로 파생과 합성을 제시함으로써 규칙의 관점에서 기술이 이루어졌다면 <표준 문법>에서는 규칙을 주된 관점으로 삼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단어 형성 방법에서 규칙적인 관점 외에 유추적인 관점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성과 파생 이외에 ‘영 변화’, 내적 변화, 중첩, 통사 구성의 어휘화, 혼성, 축약, 역형성’ 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하였는데 이는 최근 형태론 분야의 이론 문법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으로 학교 문법에서 단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과 달리 단어 형성 과정이나 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존의 학교 문법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휘화나 축약, 혼성과 같은 다양한 단어 형성 방법을 도입한 것은 실제 단어들을 분석하는 데 규칙적인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국어의 현상 자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표준 문법> 전체를 관통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력 있는 문법 체계라는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거라’와 ‘너라’ 활용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한 것도 주요한 변화의 하나이며 접사의 문법적 기능을 ‘파생어’를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어근’을 중심으로 그 품사 변화의 여부를 중요시하였던 기존의 접사 이해와는 다른 관점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역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좀 더 간결하고 설명력 있는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 4. 통사론

통사론 기술에서 역시 형태론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 등 기존 문법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기술되었으나 통사론 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부분이 있어 기존의 문법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는 그간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 4.1. 문법 단위의 경계 확정과 어절의 문제

우선 문법 단위 문제에 대해 도입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렇듯 문법 단위 문제만을 도입부에서 자세히 조망하는 것은 형태론, 담화론 등 여타 분야와 통사론의 경계를 확정 짓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 통사론적인 단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앞선 형태론에서 이어지는 특징이다. 문법 단위의 설정이 문법 논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절차라고 볼 때 이러한 문법 단위 설정에 대해 각론에서의 특성에 부합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단어’라는 개념이 가진 모호성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를 ‘음운론적 단어’, ‘통사론적 단위’와 같이 나누어 살펴본 것은 그러한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어절’ 개념에 대한 비

관적 태도가 기존의 학교 문법의 태도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어절’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준이 혼재된 문법 단위로 실제 이를 단위로 삼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 이론 문법에서 ‘어절’은 문법 단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바, ‘어절’의 필요성은 이론적인 배경에서 찾기는 힘들 듯하다. 따라서 <표준 문법>에서는 어절의 효용성을 소개하면서도 문법 교육에서 어절 개념을 계속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러나 어절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언중들에게 있어 어절은 포착 용이한 문법 단위임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어절이 가진 심리적 실재성, 음성적 독립성 등도 ‘어절’을 단위로 설정하는 데 근거를 마련해 준다. <표준 문법>에서도 언어 정보학이나 교육 분야에서 역시 어절이 효용성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는데<sup>10)</sup> 이와 같이 ‘어절’은 이론적 타당함보다 설명의 ‘효용성’을 가치로 하는 단위이다. 이는 ‘어절’이 정서법상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는 것과 큰 관련성을 가진다. 어문 규범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과 고정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효용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표준 문법>에서는 ‘어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진 학문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효용성의 입장에서 ‘어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절’이 가진 성격과 언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절’은 ‘음운론적 단어’와 경계가 유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언중들에게 이미 정착된 ‘어절’이라는 개념보다 ‘음운론적 단어’라는 개념이 주는

10) 말뭉치 구축에 있어 말뭉치의 규모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산정된다. 이는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정서법상 ‘단어’가 아닌 ‘어절’이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문법 교육에서 ‘어절’이 갖는 효용성에 대해 강계림(2015)에서는 ‘어절’을 문장에서 형태적 자립성을 갖는 최소의 단위로 설정하고 통사 분석 층위의 문법 단위로서 효용을 갖는다고 한다.



거리감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4.2. 보어의 확대

보어의 범위를 확대한 것 또한 <표준 문법> 통사론 기술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 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문장과 관련해 보어를 설정하였으나 <표준 문법>에서는 주어가 아님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가 명사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좋다’, ‘맞다’등과 같이 [NP1이 NP2가 V-]의 논항 구조를 가진 다양한 서술어에서 보어가 설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준 문법>에서 소개하는 보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어’는 일부 자동사 및 형용사 서술어가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이다. 보어는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되어 성립된다”고 한다. 이때 보어에 결합하는 ‘이/가’를 보격 조사로 보는데 다른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2) ㄱ.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싫어.

ㄴ.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 싫어.

위의 (2) 예문에서 밑줄친 ‘사람이’가 보어가 되는데 이때 ‘이/가’는 생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11)</sup>.

<표준문법>에서의 보어 설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가’가 붙은

11) 모든 예에서 보격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아래의 예에서 (ㄴ)에서의 보격조사 생략은 부자연스럽지만 (ㄷ)의 경우는 자연스럽다. 이는 다른 격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생략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특성인 것이지 항상 생략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ㄱ. 나는 바깥소식이 궁금하다.

ㄴ. ?나는 바깥소식 궁금하다.

ㄷ. 나 바깥소식 너무 궁금해.

형태만을 보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흔히 보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논의에서는 보어를 ‘보충어’로 이해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의 필수 성분을 보어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필수적 부사어들이 대거 보어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렇듯 보어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것 외에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가진 공통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표준 문법>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다<sup>12)</sup>. 또한 필수적 부사어에 결합되는 조사는 생략이 불가능한 데 반해, 보격조사 ‘이/가’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가’가 붙은 형태에 한해 보어를 인정하는 입장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가’를 보격 조사로 처리하면서 ‘이/가’를 주격조사로 처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격 중출문-또는 서술절-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는 점도 <표준 문법> 중 보어 논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이다’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다’의 선행 체언도 보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그간 대표적인 보어 요구 용언이었던 ‘아니다’와 마찬가지로 ‘이다’가 형용사의 일부가 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형용사로서의 ‘이다’와 ‘이다’와 ‘아니다’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다’의 선행 요소를 보어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처리인 듯도 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설명한 ‘이/가’ 조사가 붙은 형태만을 보어로 인정함으로써 얻었던 설명력을 모두 잃게 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다’의 선행 요소에는 ‘이/가’가 붙지 않는다. 보어의 의미역을 대상(Theme)으로 파악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이다’의 선행 체언의 의미역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 <표준 문법>이 참조 문법이자 기반 문법으로서 범용적인 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다’ 선행 체언의 보어 처리는

12) 필수적 부사어를 논할 때 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모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이다’에는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될 수 없지만 이는 조사 ‘이/가’와 ‘이다’의 통시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띄어쓰기는 어문 규정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므로 보어 설정에 큰 문제가 없다(p. 423)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가’가 항상 비실현되는 현상을 조사 ‘이/가’와 ‘이다’의 통시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국어 현상 자체에 주목하여 서술하겠다는 다른 부분의 서술 태도와도 상치되며 준종합적 입장을 견지하며 현재 띄어쓰기 체계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와도 상반된다. 무엇보다 띄어쓰기를 인위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는 태도는 이 <표준 문법>이 기반 문법이자 참조 문법으로서 갖는 범용성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다’의 선행 체언을 보어로 볼 수 있다면 통사적 접사라 불리는 ‘같다’, ‘답다’의 선행 체언 역시 보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특히 ‘답다’의 경우 선행 체언과의 사이에 어떠한 조사가 개재될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다’처럼 통시적인 관계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같은 의존형용사 안에서 ‘이다’만이 보어를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의존형용사로 설정된 ‘답다’나 ‘같다’에서 선행 요소들은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앞서 3장의 ‘이다’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이다’의 선행 요소를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논쟁거리로 남게 된다. 보어의 확대를 꾀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다’의 선행 요소 역시 보어의 일종으로 보고자 한 시도로 생각되나 이렇듯 무리한 보어 설정이 보어 확대의 의의를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4.3. 접문장 체계의 변화

접문장 체계에서는 연계 관형절의 설정과 명사절의 범위에 대한 기술이 달라진 점이 <표준 문법> 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명사절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기능을 중시하여 ‘것’과 일부 의문형 어미를 포함하는 구성까지 명사절 상당 구성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사절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준 문법>에서는 ‘것 명사절 상당 구성’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용언의 종결형에 ‘-는 것’이 붙어서 되는 것(긴 것 명사절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것’이 붙어서 된 것(짧은 것 명사절 구성)이다. 서술만 보아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음의 예를 보면 이해가 쉽다.

(3) ㄱ. 그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긴 것 명사절)

ㄴ. 나는 네가 들어온 것도 몰랐다. (짧은 것 명사절)

(3ㄱ)과 같이 안건절의 종결 어미가 살아 있고 뒤에 -는 것’이 붙은 것이 긴 것 명사절 구성이고 (3ㄴ)과 같이 용언의 관형형에 ‘것’이 결합된 것이 짧은 것 명사절 구성이다. ‘관형사절+의존명사’ 구성과 명사절 상당 구성을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것’ 명사절을 인정하는 것은 ‘것’ 명사절의 압도적인 빈도에 근거해 자료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음’명사절보다 ‘것 명사절’의 쓰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입말에서 ‘것’ 명사절을 쓰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음’과 ‘것’이 통시적으로 대치되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것’ 명사절 상당 구성을 설정함에 있어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 (4ㄱ)이나 (5

ㄴ)은 동격 관형사절의 예로 책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4ㄴ), (5ㄴ)과 같이 머리명사를 ‘것’으로 대치해 볼 수 있다.

- (4) ㄱ. 민수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ㄴ. 민수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들었다.
- (5) ㄱ. 그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ㄴ. 그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와 같을 때 ‘소문’과 ‘사실’이 ‘것’으로 대치되면 동격 관형사절을 이루는 [관형사절 + 의존명사] 구성이 명사절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이때 의미의 차이가 현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다. 사실 이들 ‘것’ 명사절은 관형사절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의문형 어미를 명사절 상당 구성으로 제시한 것은 신선한 시도이다. 실제 이러한 의문형 어미들은 통시적으로 의존명사 구성에서 발달해 온바, 의존명사로서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실제 문장에서 명사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다<sup>13)</sup>.

- (6) ㄱ.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ㄴ. 합격 여부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다.

주로 인지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이러한 의문형 어미들이 명사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문형 어미를 명사형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sup>14)</sup>. <표준 문법>에서 역시 이들을

13) 실제 이러한 의문형 어미들을 명사형 어미로 보아온 논의들이 있었는데 차현실(1987), 오승진(1986) 등과 같은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을 관형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통합된 구성으로 파악한 논의도 있는데 그러한 논의로는 허웅(1995)와 하치근(2006), 김선훈(2010) 등을 들 수 있다.

14) 의문형 어미를 명사형 어미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김선훈(2010)에서 자세히

명사형 전성 어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문 종결 어미가 이끄는 명사절 상당 구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능을 중시한 처리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명사절이 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사절을 안긴문장의 일부로 본 점, 서술절의 인정과 같은 것은 지난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리라고 볼 수 있다. 부사절이나 서술절의 범위나 개념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전히 이론이 존재하나 기존의 학교 문법이 가진 입장이었다는 점과 부사절이나 서술절의 설정이 전체 체계의 정합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체계가 유지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문법 범주 부분에서 기존 논의와 많이 달라진 것은 높임법이다. 우선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해라체를 비격식체로 봄으로써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나만이 남게 되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하계체와 하오체를 묶어 여타 문체와 구별해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언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표준 문법』(2018)을 개괄하고 형태·통사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에 관해 비판적 관점에서 그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준 문법>은 기존 학교 문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기존의 문법 기술을 존중하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어 새롭게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법 체계란 서로 얹히고 얹혀 하나의 변화가 다른 체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들 몇 가지 변화

---

히 다루고 있다. 의문형 어미가 다른 명사형 전성 어미와 가지는 기능적, 의미적 차이, 의문형 어미의 다른 용법에 대한 설명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는 체계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좀 더 정치하게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 ‘이다’와 관련하여 문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는데 이러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의미론이 그간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으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표준 문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현경(2015)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문법 체계라 함은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나 근거의 제시, 언어의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가 변화하는 생물과 같은 것이듯이 문법 이론 역시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따른다. 따라서 표준 문법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어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가 한 번 재검토된 <표준 문법>이라는 시도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반이 될 만한 문법 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개방성이 기반 문법, 참조 문법의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표준 문법>은 ‘표준’이라는 용어 때문에 규범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규범 문법은 문어 문법을 대표하며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의 변화를 쉽게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성이 강화되면 기반 문법으로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규범 문법에 비해 개방성을 가진 기반 문법, 참조 문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책은 비록 <표준 문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표준이 될 만한 참조 문법, 기반 문법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 가치는 그로써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 문법으로 대표되는 규범 문법에 이러한 체계가 반영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국어학계를 풍요롭게 할 것은 자명하다.

## 참고문헌

- 강계림(2015), “문법 교육에서 “어절”의 효용성”, 『새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학회, 415-439.
- 고영근(2000), “우리나라 학교 문법의 역사”,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27-40.
- 구본관·황화상(2018), “표준 국어 문법 형태론 분야의 특징과 활용”, 『언어와 정보 사회』 34, 서강대 언어 정보 연구소, 397-425.
- 김선혜(2010), “이른바 어미 ‘-ㄴ지’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1985/201), 『제4판 표준국어 문법론』, 박이정.
- 남기심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정규(2013), “‘표준 문법’으로서의 ‘학교 문법’ 정립을 위하여”, 『우리말연구』 34, 우리말학회, 51-80.
- 오승신(1986), “‘-ㄴ지’의 통사적 기능전이에 따른 의미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2013), “표준 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67-99.
- 유현경·한재영·강현화·구본관·이진호(2016), “표준 국어 문법의 구축”, 『언어와 문화』 12-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6.
- 유현경·이정택(2018), “표준 국어 문법 통사론 분야의 특징과 활용”, 『언어와 정보 사회』 34,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427-455.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이선웅(2014), “기술문법과 학교문법: 총론”, 『국어학』 69, 국어학회, 167-205.
- 정희창(2016), “문법의 규범적 관점과 해석”, 『한말연구』 40, 한말연구학회, 225-250.
- 차현실(1987), “명사화 어미 범주 체계화 시론 - {-기}, {-음}, {-지}, {-ㄴ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5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71-90.
- 최정도·김선혜(2009), “‘부사+이다’구문에 대한 연구-그만이다’류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국제어문학회, 133-164.
- 최현배(201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하치근(2006), “‘지’ 짜임월의 문법화 과정 연구”, 『우리말연구』 18, 국제어문학회, 우리말연구학회, 27-55.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김선혜(Kim, Sunhye)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위당관 언어정보연구원 520호

전자우편 : tjspdi@daum.net

원고 접수일 : 2019년 4월 14일

원고 수정일 : 2019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5월 29일

## Abstract

## The Exploration of the New Standard Korean Grammar

**Kim, Sunhye**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aims to recap the points from the Standard Korean Grammar(2018) and discuss it critically. The content covered by standard Korean Grammar(2018) is so extensive that looked at it with a focus on Morphology and Syntax.

This paper discuss the details of change from existing school grammar, because the system of Standard Korean Grammar(2018) is based on the school grammar and described in a way that respect the existing grammatical system. Each part of the grammar is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view of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several changes need to be discussed more carefully. It is regrettable that the changes to these systems as a whole have not been fully accounted for, although there has been a major change in the grammar,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ida' and 'composition' settings. However, the attempt of Standard Grammar, whose overall system of Korean grammar has been reexamined, is a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s.

**Keywords:** 『*The Standard Korean Grammar*』, standard grammar, prescriptive grammar, ida, complement

**핵심어:** 『한국어 표준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 ‘이다’, 보어